

『삼국사기』 소재 「도미설화」의 구비 전승과 변이에 대한 연구 -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정 제 호*

[국문초록]

본고는 충남 보령 지역에서 구비전승되는 「도미설화」에 대한 연구이다. 충남 지역 「도미설화」는 다른 각편과 몇 가지 차별점을 갖는다. 첫째, 도미의 직업이 목수로 나타난다. 둘째, 권력자가 도미 부인을 겁탈하기 위해 도미에게 건축을 맡겨 부재 상황을 만든다. 셋째, 도미 부인이 휘절을 피하기 위해 몸종으로 자신을 대신하게 하는 서사가 등장하지 않고, 자신의 부정을 핑계로 말미를 얻는 방법을 선택한다. 이러한 충남 지역 「도미설화」의 특징은 문헌과 구전을 통해 전승되고 있는 「도미설화」의 전승양상과 비교할 때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충남 지역 「도미설화」는 서사무가 「성주풀이」와 매우 유사하다. 「성주풀이」에서도 주인공이 목수로 등장한다. 또한 황우양이 상부의 지시로 인해 건축에 동원되면서, 부재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는 점도 흡사하다. 게다가 황우양 부인이 휘절이라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몸의 부정을 핑계로 시간을 번다는 점 역시 충남 지역 「도미설화」

*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전임연구원

주제어: 삼국사기, 도미설화, 충남, 보령, 성주풀이, 전승, 변이, 화랭이
Samgusaki, Domi, Chungnam region, Boryeong, Seongjufuri, transmission, variation, Haraeng-i

와 유사하다 하겠다.

이렇게 볼 때, 충남 지역 『도미설화』는 전승에 있어 「성주풀이」의 영향을 받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다만 「성주풀이」는 경기 남부의 화랑이 집단을 중심으로 전승되기에 두 자료 간의 간극이 느껴진다. 하지만 경기 남부의 화랑이는 활동 영역이 충남까지 이어졌으며, 충남 보령 역시 주요 활동 무대였음이 기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렇게 볼 때, 충남 지역에서 「도미설화」의 전승에 있어 「성주풀이」가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들어가며

설화는 장르적 특성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에 같은 작품으로 묶어 제명(題名)을 통일하여 다룰 수는 있지만, 내용까지 모두 같다고 말할 수는 없다. 수많은 요소에 의해 설화가 변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설화가 여러 전승 수단을 거치고, 또 다양한 지역에서 전승된다면, 그 변이 양상은 더욱 다양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설화는 전승 수단에 따라 문헌전승과 구비전승으로 나뉘기도 하고, 전승 지역에 따라 지역적 각편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렇게 설화가 변개(變改)될 수 있게 하는 요인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다른 작품의 영향을 받아 변이되는 양상이 존재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 연구는 설화의 전승 양상을 밝히는데 있어서 유의미한 방법론으로 활용되곤 한다. 하지만 비교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화의 전승과 변이에 대해 서술한 이유는 본고에서 한 편의 설화의 전승과 변이 양상에 대해 다루고자 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다룰 작품은 바로 「도미설화」이다. 「도미설화」는 「관탈민녀형 설화」¹⁾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삼국사기』 권48 열전8에 수록되어 있다. 「도

미설화」는 연구자에 따라 설화, 열전, 전기 등 다양한 장르로 분류되었지만, 현재는 대체로 설화로 파악하고 있다. 물론 연구의 성격에 따라 장르에 대한 규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도미설화」의 장르에 대한 이견은 남아 있다. 하지만 열전이나 전기로 「도미설화」를 파악하는 연구 역시 그 근원은 설화임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설화로 분류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²⁾

「도미설화」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체로 장르적 성격에 대한 연구³⁾, 전승양상에 대한 연구⁴⁾, 「청화담」이나 「아랑의 정조」와 같은 다른 장르로의 수용 양상에 대한 연구⁵⁾, 열녀 담론에 관한 연구⁶⁾ 등으로 나누어 살

- 1) 「관탈민녀형 설화」란 “관리가 평민의 여자를 빼앗으려는 사건을 담은 설화”이다. 최래옥은 남녀의 신분차로 인한 애정갈등에 초점을 두고 여자가 상위신분이고 남자가 하위신분인 경우를 ‘공주출궁형 설화’라 하고, 남자가 상위신분이고 여자가 하위신분인 경우를 ‘관탈민녀형 설화’라고 하여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최래옥(1981), 「관탈민녀형 설화의 연구」, 『한국고전산문연구』, 동화문화사, pp. 91-112).
- 2) 손정인(2003), 「<도미전>의 인물형상과 서술방법」, 『어문학』 80, 한국어문학회, pp. 355-362 참조.
- 3) 김태준(1939), 『조선소설사』, 학예사; 김정섭(1979), 「삼국사기 열전의 문학적 고찰」, 『문학과 지성』 10-1, 문학과 지성사; 권오성(1981), 「삼국사기 열전의 문학적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용덕(1987), 『한국전기문학론』, 민족문화사; 임형택(1989), 「《삼국사기·열전》의 문학적 성」, 『한국한문학연구』 12, 한국한문학연구회; 박용식(1993), 「삼국시대의 설화 연구와 소설사적 문제」, 『고소설사의 제문제』, 집문당; 이동환(1994),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한국사』 17, 국사편찬위원회; 소인호(1998), 『한국전기문학연구』, 국학자료원; 윤채근(1999), 「소설적 주제, 그 탄생과 전변」, 월인; 이현홍(1999), 「고전소설강론」, 세종출판사; 손정인(2003).
- 4) 정상박(1988), 「도미부인 설화 전승고」, 『국어국문학』 8,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최운식(1996), 「도미설화의 전승 양상」, 『고문화』 49,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이준희(2002), 「도미설화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장덕순(1970), 「도미설화와 <아랑의 정조>」,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최래옥(1981); 김낙효(1992), 「도미설화의 소설화 고찰」, 『봉족헌 박봉배 선생 정년 기념 논문집』, 봉족헌박봉배선생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박상란(1994), 「도미설화, 그 전승의 맥락」, 『우리 역사인물 전승』 1, 집문당.
- 6) 강진옥(1995), 「삼국 열녀전승의 성격과 그 서사문학적 의의」, 『한국 서사문학사의

펴볼 수 있다. 이들 연구 중 문헌설화를 중심으로만 다루어지던 『도미설화』를 직접 채록하여, 구비전승의 양상을 살핀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⁷⁾ 이 연구를 통해 『도미설화』가 문헌전승 이외에도 구비전승의 영역에서 다양한 각편이 전승되고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채록과 간단한 내용 정보만을 전달하고 있어, 『도미설화』 구비전승의 양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도미설화』의 구비전승의 양상과 그 특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도미설화』의 구비전승이 갖는 특이성의 의미와 전승에 있어서의 영향관계에 대해 따져보려고 한다. 실상 『도미설화』는 문헌전승에 대한 인식이 강해 구비전승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생소한 편이다. 하지만 설화는 문헌전승의 흐름 속에서 또 다른 구비전승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기도 한다. 서책 속에 갇혀 더 이상 변화할 수 없는 문헌설화와 달리 구비전승의 맥락 속에서 다양한 변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도미설화』 역시 구비전승의 한 축이 마련되면서 의미 있는 변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그 변이에 있어서 다른 장르의 작품과 교섭하며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점에서 장르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도미설화』의 구비전승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헌과 구비라는 두 줄기의 흐름을 갖고 있는 『도미설화』의 전승 양상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설화 변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연구」 2, 중앙문화사.

강진옥(1995), 『열녀전승의 역사적 전개를 통해 본 여성적 대응양상과 그 의미』, 『여성학논집』 1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7) 최운식(1996).

2. 「도미설화」 구비전승의 양상과 특이점

「도미설화」의 전승은 크게 문헌전승과 구비전승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문헌 전승에 대해 살펴보면, 「도미설화」가 『삼국사기』에 수록되어 전해지는 만큼 그 연원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동국통감』, 『동사강목』, 『해동잡록』, 『삼강행실도』, 『성주 도씨 족보』 등 다양한 문헌에서 「도미설화」가 전승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각편으로 독립성을 갖기보다는 『삼국사기』에 수록된 「도미설화」를 각각의 문헌의 특성에 맞게 적절히 변형하여 수록한 형태이다. 사서나 교훈서, 족보 등 각 문헌의 특성에 맞게 축약, 수정, 첨가를 통해 적절히 「도미설화」를 변형하여 전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체로 문헌전승의 「도미설화」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토대로 해, 그 내용을 수용하여 기록했기 때문에 내용상의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⁸⁾

이러한 문헌 전승과 함께 구비 전승의 영역에서도 「도미설화」는 활발히 전승되고 있으며, 여러 각편이 채록되어 있다. 구전 「도미설화」의 채록은 정상박⁹⁾, 최운식¹⁰⁾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정상박은 단 한 편의 각편만을 채록하여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최운식의 조사에 포함시켜 함께 다루도록 하겠다. 최운식은 「도미설화」를 채록하여 정리하였는데, 그 전승 양상은 크게 두 가지 줄기로 나눌 수 있다. 채록된 「도미설화」는 경남 진해와 충남 보령이라는 두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지역에서 채록된 「도미설화」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각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 「도미설화」의 문헌전승에 관해서는 정상박의 연구를 참고할 만하다. 정상박은 ‘사서’, ‘교훈서 및 기타’, ‘족보’ 등 「도미설화」가 전승되는 문헌의 유형을 나누고 그 양상을 살피고 있다(정상박(1996), pp. 11-20).

9) 정상박(1988), pp. 22-23.

10) 최운식(1996).

[표 1] 경남 진해시 「도미설화」

번호	구연자	조사자	전송 지역	채록시기	발표지
1	박은수	정상박	경남 진해	1988	도미부인 설화 전승고
2	김복덕	최운식	경남 진해	1996.10.25	도미설화의 전승양상
3	박은수	최운식	경남 진해	1996.10.25	도미설화의 전승양상

경남 진해 지역에서 채록된 각편의 수는 총 3편이다. 그런데 이들 중 정상박이 채록한 「도미설화」의 구연자 ‘박은수’와 최운식이 채록한 「도미설화」의 구연자 ‘박은수’는 동일 인물이다. 그러나 동일인이 구연했음에도 내용상의 차이가 있다. 정상박 채록본에서는 도미가 ‘도정승’으로 등장하고, 임금이 그의 부인을 빼앗으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해 최운식 채록본에서는 정승이 도미의 처를 빼앗으려 한다고 시작하고 있어 서로 다른 점이 나타난다. 하지만 최운식 채록본에서 처음에는 도미를 ‘도미 할아버지’라고 하다가 후반부에는 ‘정승 할아버지’라고 지칭하고 있고, 도미 부인을 탐하는 ‘정승’을 ‘임금’이라고 바꿔 지칭하고 있다. 이는 구연자의 기억의 착종으로 인한 오류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이후 전개되는 내용상으로는 두 편의 각편이 거의 유사하게 진행된다. 최운식 채록본이 좀 더 축약된 형태이긴 하지만 내용에서의 차이는 크지 않은 편이다.

경남 진해 지역의 「도미설화」는 대체로 『삼국사기』의 내용을 축약한 형태로 전개된다. 서사를 축약하여 제시하였을 뿐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박은수본에서는 도미를 ‘정승’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게다가 임금과 친하게 지냈다고 구연하고 있어 더욱 특이하다 하겠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도미는 ‘편호소민’(編戶小民)으로 제시되어 있다. 평민으로 설정되어 있어 임금으로 대표되는 권력에 의해 부인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박은수본에서 도미가 정승으로 제시되는 것은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수용한 다른 문헌전승에서도 도미가 정승과 같은 권력가로 제시된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주 도씨 족보』를 살펴보면 도미를 백제 개루왕을 도운 인물로 그리고 있다.¹¹⁾ 더욱이 왕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어 그 신분이 매우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박은수본은 『성주 도씨 족보』를 참고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두 각편의 전개양상이 유사하고, 또한 끝부분에 도미 무덤에 대한 서술이 등장하고, 고구려로 가서 살았다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는 점도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다. 『성주 도씨 족보』가 문헌전승의 「도미설화」 중에서도 도미에 대한 설정이 특이한 점을 고려할 때, 박은수가 이를 참고하였거나, 『성주 도씨 족보』가 구전으로 전승되며 박은수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경남 진해 지역의 구전전승과 함께 충남 보령 지역에서도 「도미설화」가 전승되고 있다. 특히 충남 보령 지역의 각편들은 그 설정이 특이하고 이질적이어서 주목된다. 충남 보령 지역의 각편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 충남 보령시 「도미설화」

번호	구연자	조사자	전승 지역	채록시기	발표지
1	김현택	최운식	충남 보령	1996.05.22	도미설화의 전승양상
2	이용돈	최운식	충남 보령	1996.05.22	도미설화의 전승양상
3	허 준	최운식	충남 보령	1996.08.03	도미설화의 전승양상
4	김종찬	최운식	충남 보령	1996.08.03	도미설화의 전승양상
5	김창화	최운식	충남 보령	1996.08.03	도미설화의 전승양상

충남 보령 지역의 「도미설화」는 모두 최운식이 조사한 것으로 5편이 채록되었다.¹²⁾ 5편의 각편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내용상의 차

11) 後孫都彌 漢桓帝延熹時 佐百濟蓋婁王 (『성주 도씨 족보』,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소장 필사본).

12) 최운식 이외에 충남 보령 지역에서 「도미설화」를 채록된 각편이 한 편 더 존재한다. 이준희는 자신의 석사논문에서 충남 보령 지역에서 채록한 「도미설화」에 대한

이는 크지 않다. 이렇게 특정 지역에서 여러 편의 『도미설화』 각편이 구비전승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의 『도미설화』는 주변 지형지물과 연관되며 여러 증거물들을 남기고 있다. 특히 오천면 교성리의 작은 항구가 ‘도미항’으로 명명되고 있고, 도미항 건너편의 빙도(氷島)는 도미부인이 태어났다고 하여 ‘미인도’라 부른다고 한다. 또한 청소면 일원에 있는 넓은 들을 ‘전마들’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 각편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설화에서 도미 부부가 헤어졌다 다시 만난 원산도 역시 이곳에 위치해 있다.¹³⁾ 이렇듯 『삼국사기』 소재의 『도미설화』가 보령 지역에서 전승되면서 주변 지형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전승되는 양상을 보인다.

충남 보령 지역의 『도미설화』 역시 『삼국사기』의 기록을 많이 참고하고 있다. 미인이었던 도미 부인을 권력자가 빼앗으려 하는 것이나, 부인을 차지하는 것에 실패하자 도미의 눈을 파는 형벌을 내린 것 역시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또한 눈을 다친 도미가 배에 띄워져 떠내려 보내지고, 부인과 겨우 상봉하여 달아난 점도 『삼국사기』의 기록과 닮아 있다.

그런데 충남 보령 지역 『도미설화』에는 특징적인 변이 부분이 있어 주목된다. 우선 5편의 각편 모두에서 도미의 직업이 ‘목수’로 나타난다. 이렇게 도미를 목수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생소하다 할 수 있다.

①

제가 들은 얘기로는, 여러 가지 전설이 많은데, 도미라는 목수가 있었다고 그래요.(김현택본)

정보를 수록해 놓았다. 그런데 논자는 해당 각편에 대한 간략한 서사단락만을 제시하고 원문을 제시하지 않아 그 내용을 알기 어렵다. 더욱이 이준희의 조사는 최운식이 이미 조사한 구연자에 대한 재조사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준희 채록본은 각편에서 제외하고 최운식이 채록한 5편만을 대상으로 하겠다(이준희(2002), pp. 43-44).

13) 최운식(1996), pp. 161-163.

옛날에 미인도라고, 여기 근너가면 …… 그 고기서 살었드래유.
여자가 출가해 가꾸. 목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목수 하구 결혼해 가
꾸서 살었드래요.(이용돈본)

왕이 목장을 둘러보러 왔다가 도미의 아내가 굉장히 미인이라는
소리를 듣구서, 도미를 불러서 마구간 짓는 것을 청부를 주었대.(허
준본)

도미를 불러서는 목수니께, 집을 짓게 맹글어 놓더랴.(김중찬본)

도미라는 분이 목수라느면 그류.(김창화본)

이렇게 충남 보령 지역 각편에서는 도미를 목수로 지칭하거나, 직접 지칭하지 않더라도 목수임을 추측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삼국사기』에서는 도미를 ‘편호소민’으로만 기록하고 있고 특별한 직업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런 도미가 충남 보령 지역의 각편에서는 목수로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충남 보령 지역 각편을 제외한 어느 각편에서도 도미의 직업은 목수로 나타나지 않는다. 대체로 다른 각편에서는 직업을 명시하지 않고 있고, 『성주 도씨 족보』와 경남 진해의 박은수본에서만 정승 혹은 지체 높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이다. 실상 「도미설화」에서 도미의 직업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충남 보령 지역 각편에서 도미를 목수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매우 특이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도미 부인을 차지하고자 도미를 부재(不在) 상황으로 만드는 방법도 목수라는 직업에 맞게 변이되어 나타난다. 왕이나 권력자가 도미에게 마구간과 같이 특정한 건물을 짓게 하고, 그 틈에 부인을 취하려 하거나, 아니면 건물이 제때 지어지지 못한 것을 핑계로 하여 도미를 처벌하고 부인을 겁탈하려 한다. 이는 도미의 직업에 따라 서사가 변이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해당 서사가 명확히 드러나는 몇 편의 각편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②

왕이 목장을 둘러보러 왔다가 도미의 아내가 굉장히 미인이라는 소리를 듣구서, 도미를 불러서 마구간 짓는 것을 청부를 주었다.(허준본)

도미를 불러서는, 목수니께, 집을 짓게 맹글어 놓더랴.(김중찬본)

그래 가꾸서는 목수니까, 불러다가서는 단시일 내로 집을, 한 10칸 정도 4~5일 내로 지어라. “만약이 그 기간 내에 못 지으면, 왕의 명령으로 지긴다.”(김창화본)

도미에게 주어진 과업이 명확하지 않은 2개의 각편을 제외하고 보면, 모두 권력자가 도미에게 집 혹은 마구간과 같은 건물을 짓게 하여 부재 상황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과업 미수행에 대한 엄벌을 통해 도미를 제거하고, 부인을 차지하고자 하는 시도가 드러난다. 이는 『삼국사기』와 그 계열을 함께 하는 각편에서 왕과 도미가 만나 아내의 정절을 두고 내기를 하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충남 보령 지역 각편에서는 도미 부인이 권력자의 훼손 시도에 맞서는 방법이 경남 진해 지역 각편과는 조금 다르게 제시된다. 『삼국사기』에서 도미 부인은 왕의 훼손 시도에 대해 한 번은 몸종을 단장시켜 자신을 대신하게 한다. 이렇게 한 번의 훼손 시도를 피한 도미 부인은 두 번째 훼손 시도에 대해서는 월경을 핑계로 동침을 미루는 방식을 취한다. 그런데 경남 진해 지역 각편은 첫 번째인 몸종을 대신 보내는 형태로 도미 부인이 훼손을 피하는 서사만 등장한다. 이는 『삼국사기』 이후 문헌전승에서 보이는 전개 양상과 흡사하다 할 수 있다. 『동국통감』, 『동사강목』, 『해동잡록』, 『삼강행실도』, 『성주 도씨 족보』 등의 기록에서는 몸종으로 자신을 대신하게 하는 서사만이 등장한다.¹⁴⁾ 즉 『삼국사기』 이

14) 정상박(1988), pp. 11-20 참조.

후의 문헌전승과 경남 진해 지역의 구비전승에서는 도미 부인이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피하는 방법으로 몸종을 단장시켜 자신을 대신하는 방법을 취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충남 보령 지역 각편에서는 몸종으로 자신을 대신하는 서사가 등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지역 각편에서는 도미 부인이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핑계로 기한을 늦춰 휘절을 피하는 형태로 변이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화소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허준본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③

도미 아내를 불러서,
“네 남편은 이미 죽었다. 그러니 너 오늘부터 내게 시침(侍寢)을 해라.”

하니까, 도미의 아내가 얼굴에 화색을 띄우고, 아주 좋아하면서,
“내가 일개 목수의 아내인데, 왕이 나에게 시침을 하라고 하면 내가 성공하는 것인데, 왜 앓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몸이 부정해요. 그러니까, 몸이 깨끗해진 뒤에 목욕재계하고 와서 모시겠소.”

이렇게 혼연하게 대답을 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왕이 넘어갔단 말여.(허준본)

『삼국사기』를 비롯한 여타 각편에서는 기본적으로 도미 부인이 휘절을 피하기 위해 몸종을 단장시켜 자기 대신 왕에게 보낸다. 이는 휘절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속은 것을 안 왕이 노하여 도미의 눈을 파버리는 극형을 내리게 된다. 그런데 충남 보령 지역 각편에서는 부인이 자신의 몸이 부정하다는 것을 핑계로 말미를 얻는 형태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도미의 안맹(眼盲)이 부인에 의한 것이 아니게 된다. 오히려 앞에서 언급한 제때 건물 짓기의 실패에 대한 대가로 눈을 빼앗기는 형태로 전개되는 것이다.

이렇듯 충남 보령 지역 각편들은 독자적인 서사 전개 양상을 보이며 나름의 전승양상을 갖는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충남 보령 지역 「도미설화」가 이러한 변이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3. 충남 지역 「도미설화」와 「성주풀이」의 유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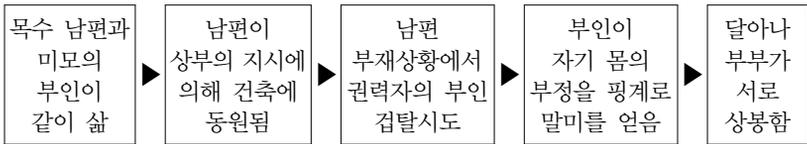
앞장에서는 충남 보령 지역 「도미설화」의 특이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문헌으로 전승되고 있는 「도미설화」와 경남 진해 지역에서 구비전승되는 각편은 대체로 『삼국사기』의 기록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충남 보령 지역 각편들은 두드러지는 변이양상을 보여 주목된다. 다른 각편과 차별되는 특이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타 각편과 달리 도미의 직업이 ‘목수’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갖는다. 둘째, 권력자가 도미 부인을 검탈하기 위해 도미에게 건축을 맡겨 부재 상황을 만든다는 점에서 다른 각편들과 차이점이 보인다. 셋째, 도미 부인이 횡절을 피하기 위해 몸종으로 자신을 대신하는 서사는 등장하지 않고, 자신의 부정을 핑계로 말미를 얻는 방법만을 선택한다는 점 역시 두드러지는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문헌전승과 구비전승에서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는 「도미설화」의 전승양상을 살펴볼 때 충남 보령 지역의 각편은 매우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도미설화」는 단순히 『삼국사기』의 기록뿐만 아니라 사서나 교훈서, 족보 등 다양한 문헌에서 그 자취가 발견될 정도로 전승에 있어서의 일률성이 유지되는 서사이다. 또한 「도미설화」는 고전소설 「청화담」에도 수용되어 소설화되기도 하였고, 근대 이후 박종화의 소설 『아랑의 정조』에 수용되기도 하였다.¹⁵⁾ 또한 서정주의 시 「도미네의 떠돌이길의 노래」 등의 모티프가 되기도 한다.¹⁶⁾ 이렇게 다양한 장르에서 「도미설화」

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그 서사의 변이는 크지 않은 편이다. 오히려 『삼국사기』의 기록을 충실히 따르면서 기본 줄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편이 더 옳을 것이다. 이런 특성은 구비전승에까지 이어져 경남 진해 지역 각편은 『삼국사기』의 기록과 유사하게 전승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 보령 지역에서만 변이양상을 보인다는 것은 매우 특색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특수성을 갖는 충남 보령 지역 「도미설화」의 서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충남 보령 지역 「도미설화」의 전체 서사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그런데 이렇게 서사를 정리해보면 충남 보령 지역 「도미설화」의 서사와 유사한 내용의 작품이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바로 그 작품은 「성주풀이」이다. 「성주풀이」는 가택신인 성주신과 그 부인인 터주신의 내력을 이야기하는 서사무가를 말한다. 「성주풀이」는 ‘성조푸리’, ‘성조풀이’, ‘성주본가’, ‘성조신가’, ‘성주무가’, ‘성주굿’, ‘황제풀이’ 등 다양한 이칭(異稱)이 있지만 「성주풀이」가 널리 받아들여지는 명칭이다.¹⁷⁾ 이에 본고에서도 「성주풀이」를 대표명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성주풀이」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일반 무가로 성주신을 청배하거나, 축원을 올리고, 본향을 밝히는 무가가 있

15) 김낙효(1992), pp. 469-487.

16) 이준희(2002), pp. 67-72.

17) 조현설(2009), 「성주풀이」,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 1, 국립민속박물관, p. 473 참조.

다. 또한 서사무가로 성주신의 직능이 중심이 되는 ‘안심국’ 계열과 성주신의 내력과 좌정이 중심이 되는 ‘황우양씨’ 계열이 있다.¹⁸⁾ 이들 중 본고에서 다룰 『성주풀이』는 ‘황우양씨’ 계열이라 할 수 있는 경기 남부의 『성주풀이』이다.¹⁹⁾ 『성주풀이』는 황우양이 성주신으로 좌정하는 내력을 구술하고 있는 서사무가로, 천하궁을 재건하고 악인 소진량을 징치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성주풀이』는 충남 지역 『도미설화』와 많은 유사성을 보여 주목된다.

가장 먼저 주목되는 지점은 황우양의 직업이다. 사실 서사에서 황우양의 직업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통해 황우양의 직업을 쉽게 알아낼 수 있다. 먼저 황우양 아버지를 통해 추측할 수 있

18) 『성주풀이』의 유형 분류는 김태곤에 의해 시작되었다. 김태곤은 ‘천상계 본향 계통의 성주무가’와 ‘안동 제비원 본향계통의 성주무가’로 나누어 분류하였다(김태곤(1974), 『무가의 전승변화체계－성주무가계통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7, 한국민속학회). 여기에 대한 최근 연구로는 김나영의 연구가 있어 참고할 만하다(김나영(2011), 『성주무가 사설의 ‘공간-영역’에 관한 세 층위의 분석』, 『인문과학연구』 29, 성신여대 인문과학연구소, p. 6).

19) 이 계열에 속하는 각편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각편명	구송자	전송지역	조사자	발표지	간행처	발표년도
1	성조본가	이성녀	경기 고양	秋葉隆	조선무속의 연구	동문선	1937
2	성주굿	심복순	경기 화성	김태곤	한국무가집 3	집문당	1978
3	성주굿	김수희	경기 화성	김태곤	한국무가집 3	집문당	1978
4	성주굿	송기철	경기 안성	조희웅	구비문화대계 1-6	정신문화연구원	1982
5	성주굿 문서	송기철	미상	조희웅	구비문화대계 1-6	정신문화연구원	1982
6	성주풀이	대본	경기 안성	김선풍	구비문화대계 2-9	정신문화연구원	1986
7	성주굿	송기철	경기 안성	서대석 박경신	안성무가	집문당	1990
8	성주굿	김홍금	경기 화성	이용범	화성의얼 3	화성문화원	1998
9	성주	조순웅	경기 화성	하주성	화성의얼 4	화성문화원	1999
10	성주굿	오수복	경기 수원	하주성	경기도당곳의 무가	경기문화재단	2000

다. 「성주풀이」에서 황우양의 부친은 천하궁의 ‘천대목신’으로 등장한다.²⁰⁾ 즉 황우양은 목신(木神)의 아들로 나무를 다루는 인물, 즉 목수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황우양의 부친이 천대목신으로 등장하는 각편은 이성녀본 한 편에 불과하다. 이에 이것만으로 황우양의 직업을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황우양이 천하궁의 재건을 위해 부름을 받는다는 점에서도 그의 직업이 목수임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천하궁이 무너졌음에도 이를 재건할 수 있는 인물이 없자 천하궁에서는 황우양을 잡아오게 한다. 그만큼 천하궁을 재건할 수 있는 목수였기 때문이다.

이런 목수 황우양의 부인은 특별한 명칭 없이 ‘황우양 부인’으로만 등장한다. 그런데 황우양 부인은 외모가 일색인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다.²¹⁾ 이에 그 미모를 탐한 소진량의 겁박(劫迫)에 희생될 뻔 한다. 즉 뛰어난 미모 때문에 휘절의 위기를 겪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성주풀이」는 목수인 남편 ‘황우양’과 미모의 부인 ‘황우양 부인’이 부부관계로 설정되어 있다. 이런 부부관계는 충남 보령 지역 「도미설화」와 매우 흡사하다. 충남 보령 지역의 「도미설화」 역시 목수인

여러 각편이 있는 「성주풀이」 중 본고에서는 이성녀본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성녀본이 가장 이른 시기에 채록된 각편이면서 대표본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각편들도 필요에 따라 함께 고찰하도록 하겠다.

20) 성주님의본은천하궁이본이요

지신님의본은지하궁이본이라

턴하궁턴대목신, 지하궁지탈부인

백년가약매진후에, 석달에피를모고

다섯달반집바더, 육칠삭되여갈제

활부정불시하고, 석부정부좌하고

이불청음성하고, 목불식안식하고

침식에변화업시, 심삭이당도하야

옥엽태아나아노니, 저아기의거동봐라(이성녀본, p. 131)

21) 소진량은황우양부인이

인물이일색이란말을듯고, 황산썰로날여갈제(이성녀본, p. 135)

남편 ‘도미’와 미모의 부인 ‘도미 부인’이 부부관계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즉 두 작품은 등장하는 부부의 인물 설정이 같다고 볼 수 있다.²²⁾

그런데 이들 부부를 함께 지내지 못하게 갈라놓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성주풀이』에서 천하궁이 쇠동풍에 무너지면서 이를 다시 지을 인물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때 이 일을 할 수 있는 인물로 황우양이 지목되고, 천하궁에서는 차사를 시켜 황우양을 잡아오게 한다.²³⁾ 황우양은 차사를 피해 이리저리 달아나지만, 차사를 돕는 조왕할아버지에 의해 결국 잡히게 된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성주를 이룩하기 위해 천하궁으로 향한다. 차사가 전달한 ‘특패자’는 천하궁의 지시로, 천하궁 출신인 천대목신을 부친으로 두고 있는 황우양에겐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기 때문이다.

황우양에게 천하궁의 부름은 결코 원치 않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는 상부의 지시로 따라야만 하는 일이었고, 결국 천하궁으로 향할 수밖에

22) 그런데 『도미설화』 관련 자료 중 도미를 ‘목수’로 지칭하는 경우가 하나 더 있어 주목된다. 그것은 바로 박종화의 <아랑의 정조>이다. 이 작품은 영화화되기도 하는 등 일정한 유통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충남 지역 각편이 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아랑의 정조>의 경우 ‘목수’라는 직업 설정만 같고 그 이외의 부분은 문헌 기록과 거의 일치한다. 충남 지역 각편의 특성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아랑의 정조>의 영향을 통해 충남 보령 지역 『도미설화』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변이되었고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물론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 보다는 『성주풀이』의 친연성이 더욱 가깝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3) 천하궁일천란간루각에
 난데업는쇠동풍이쓴입업시불어와서
 동으로기우러져, 남으로픽국하고
 패성쥬되엿스나
 성쥬목안일올자가, 천하궁에도업고
 디하궁당황산맛, 황우양씨뿐이로다
 채사를불너들여, 특패자내여주며
 황우양씨성화참너허라
 추상갓치분분허니(이성녀본, pp. 131-132)

없었다. 그러나 이 천하궁의 부름은 황우양 집안에 큰 화(禍)를 불러일으키는 일이었다. 황우양의 부재 상황을 틈타 소진량이 황우양 집으로 들어가 그의 부인을 겁탈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런 집안의 화에도 불구하고, 황우양은 천하궁의 성주를 모두 이룩하고서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천하궁의 지시가 엄중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성주풀이」에서 남편의 부재 상황을 만드는 것은 상부의 지시로 건물을 짓는 부역(賦役)에 동원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성주풀이」의 특징은 「도미설화」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도미설화」의 각편에서는 왕이 도미를 불러 부인의 정절을 시험하는 내기를 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하지만 충남 보령 지역 「도미설화」에서는 왕을 비롯한 권력자가 도미에게 건물을 짓게 하여 집안에서 가부장의 부재 상황을 만든다. 그리고 그 틈을 타 도미 부인을 겁탈하고자 한다.(인용문 ② 참고) 즉 「성주풀이」에서처럼 목수로서 건물을 지어야 하는 부역에 동원되면서 집을 떠나게 되고, 이 부재 때문에 부인이 위기에 처한다는 것이다. 「성주풀이」의 황우양과 「도미설화」의 도미는 모두 이러한 부재 상황을 만들고 싶진 않았다. 하지만 목수라는 자신의 직업과 거부할 수 없는 상부의 지시라는 점에서 어쩔 수 없이 부역에 임하는 것이다. 물론 「성주풀이」에서는 남편을 동원하는 상부와 부인을 겁탈하려는 인물이 다르게 나타나고, 「도미설화」에서는 이 두 인물이 한 사람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남편의 부재 상황을 만드는 과정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남편이 부재 상황에 놓이면서 홀로 집을 지키고 있던 부인에게 위기가 찾아온다. 황우양 부인의 미색(美色)을 탐하던 소진량이 황우양의 집으로 찾아왔기 때문이다. 황우양 부인은 소진량의 침입을 막기 위해 애쓰지만 그의 완력을 당해내지 못한다. 소진량은 황우양의 집안으로 들어가며 황우양 부인에게 동침을 요구한다. 힘으로 소진량을 당해낼 수 없었던 황우양 부인은 피를 내어 소진량의 요구를 무산시키고자 한다.

황우양 부인은 시아버지의 제사를 핑계로 동침 날짜를 뒤로 미룬다. 소진량은 황우양 부인의 말에 설득당하며 약간의 말미를 준다.²⁴⁾ 시간이 지나고 다시 소진량이 동침할 것을 요구하자, 황우양 부인은 다시 피를 내어 자신의 몸에 일곱 귀신이 들어서 동침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대며 다시 시간을 번다.²⁵⁾ 그러면서 지금 자신의 몸을 범하게 되면 구족을 멸하는 벌을 받게 된다고 말한다.²⁶⁾ 즉 지금 자신의 몸이 부정해 동침하게 되면 재수가 없고, 천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황우양 부인은 이와 같은 핑계를 대며 시간을 벌며 소진량을 피하고 황우양이 돌아와 다시 부부가 만날 수 있도록 한다. 지혜를 통해 소진량의 겁간 시도를 피한 것이다.

이러한 황우양 부인의 지혜는 충남 보령 지역 『도미설화』의 도미 부인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도미 부인은 왕의 시침(侍寢) 요구에 자신의 몸이 부정하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며칠의 말미를 얻는다.(인용문 [3] 참고) 이러한 서사는 『삼국사기』를 제외한 문헌전승의 기록과 경남 진해 지역 구비전승 자료의 서사에서는 누락된 부분으로 매우 다른 전승양상이라 할 수 있다. 몸종을 단장시켜 자신을 대신하게 하는 것과 부정을 핑계로 동침을 미루는 것은 매우 큰 차이이다.²⁷⁾ 더구나 충남 보령 지역

24) 황우양씨첩의부인매게잡힌행이되고
개계물난담이로다, 할수업시씨를내여
소진량보고허는말이
신정도쫓커니와구정쫓차이즐손가
해가져서밤이되면, 시아버님친기오니
제사나지내인뒤에, 자리동품하옵시다(이성녀본, p. 136)

25) 나의몸에일곱귀신이접아야잇스오니
기쫓밧해지함파고, 구메밥삼년먹은후에
자리동품하옵시다(이성녀본, p. 137)

26) 만일내몸을허락하면, 삼죽을멸하기는견양
구족이멸시할것이니, 구메밥삼년먹여달나
그결냥은그리하쇼(이성녀본, p. 137)

각편이 부정을 핑계로 동침을 미루는 서사로만 전개되면서 권력자의 성격에도 일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실상 『삼국사기』를 비롯한 문헌전승과 구비전승에서 왕은 도미 부인의 미모를 탐하여 그녀를 취하려는 육체적 욕망에 의해 도미를 해(害)하고 도미 부인을 탐한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도미 부인과 동침을 하러 가는 것을 신하를 대신해서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왕은 오히려 도미의 아내에 대한 믿음을 떠보고, 여성들의 정절에 대한 부정적인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즉 왕의 횡포는 미색에 대한 육체적 욕망 때문이 아닌, 자신의 소신을 확인하고 싶은 호기심 때문인 것이다.²⁸⁾ 하지만 충남 보령 지역 각편에서는 도미 부인이 왕의 훼손 시도에 부정을 이유로 시간을 버는 화소로만 전승되며, 권력자가 오로지 도미 부인의 미색을 탐하여 벌인 횡포로 제시되는 것이다. 이에 권력자와 도미의 내기 화소도 자연스럽게 등장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도미 부인의 대응 방식은 충남 보령 지역 「도미설화」가 『삼국사기』의 기록부터 이어져 온 문헌전승과 경남 진해 지역의 구비전승의 양상과는 다른 전승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러한 양상이 충남 보령 지역의 모든 각편에서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변화라 하겠다. 결과적으로 충남 보령 지역 「도미설화」에서 도미 부인의 대응 방식이 변화하면서 「성주풀이」에서의 여성의 대응 방식과 흡사한 서사로 전개되게 된 것이다.

27) 물론 자신의 부정한 몸을 핑계로 남자의 요구를 피하는 화소는 꼭 「성주풀이」가 아니더라도 서사문학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화소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이 화소만큼은 반드시 「성주풀이」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 하지만 전체적인 서사 전개에서 충남 지역 「도미설화」가 「성주풀이」와 유사성을 보이는 만큼 이 역시 그 전개상의 흐름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 화소의 차이에 의해 권력자의 성격에도 차이가 나타남으로 중요한 변이라고 볼 수 있다.

28) 강진옥(1995), 「열녀전승의 역사적 전개를 통해 본 여성적 대응양상과 그 의미」, 『여성학논집』 1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pp. 67-68.

이밖에 부인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도 유사하다. 『도미설화』는 남편인 도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 남편의 역할은 크지 않다. 오히려 정작 작품에서 중요시되는 인물은 도미 부인이다. 권력자의 횡포 앞에 굴복하지 않고 지혜를 통해 시련을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것은 도미 부인이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통해 정절의 상징으로 자리하는 것 역시 도미가 아닌 도미 부인인 것이다. 즉 『도미설화』는 도미의 이름을 따고 있지만, 정작 서사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도미 부인이라고 할 수 있다.²⁹⁾

그런데 『도미설화』처럼 『성주풀이』 역시 남편보다는 부인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성주풀이』에서 남편인 황우양은 아둔하게 그려진다. 물론 천하공을 새로 이룩할 능력을 가진 인물이지만, 금기를 지키지 못해 자기 부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 황우양 부인은 다가올 미래의 위기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인물이며,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략을 지닌 인물로 그려진다. 또한 황우양이 천하공을 이룩하는데 사용할 연장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물이기도 하다. 더욱이 정작 위기를 극복하는 것 역시 부인의 손에 의해 이루어질 정도로 서사 전반에서 부인의 활약이 두드러진다.³⁰⁾

실상 『삼국사기』를 제외한 다른 각편의 부인의 대응은 지혜에서 나온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게다가 계략이 발각되면 더

29) 강진옥은 도미 부인의 위기에 대한 대응 방식을 통해 상황판단이 빠르고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난 인물로 파악하였다. 또한 객관적이고 침착하며 지혜로운 인물로 보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배우자에게 보이는 완벽한 사랑을 근거로 도미 부인을 한국 여성이 일찍이 자각한 인간 존재의 자율적 가치와 그것의 실천이라는 명제를 제시해준 인물로 규정하고 있다(강진옥(1995), 『열녀전승의 역사적 전개를 통해 본 여성적 대응양상과 그 의미』, 『여성학논집』 1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p. 69).

30) 『성주풀이』 황우양 부인의 성격에 대해서는 서대석이 춘향과의 비교를 통해 이미 제시한 바 있다(서대석(1989), 『성주풀이와 춘향가의 비교연구』, 『판소리연구』 1, 판소리학회, pp. 13-14).

큰 화를 부를 수 있는 계책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계책이 발각되면서 도미가 눈을 잃게 되는 화가 찾아온 것이다. 그에 비해 충남 보령 지역 「도미설화」의 도미 부인은 수청을 들 것처럼 연기를 하며 권력자의 눈을 속이고, 자신의 몸의 부정을 핑계로 시간적 여유를 벌여 자신이 피신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지혜로운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앞의 인용문(3)에서 제시했듯이, 도미 부인은 자신이 목수의 아내인데, 왕이 수청을 들라하니 어찌 기쁘지 않겠냐며 왕을 안심시킨다. 그러곤 자신의 몸이 부정하니 며칠 뒤 몸을 깨끗이 하고 수청을 들겠다고 말한다. 여기에 속은 왕은 오히려 도미 부인에게 포상을 내리며 기뻐한다. 이러한 부분은 「성주풀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황우양 부인은 소진량을 속이기 위해 좋은 말과 술로 그를 안심시키고, 만취하게 하여 잠들게 한다. 소진량이 만취하자 그때를 틈타 소진량을 죽임으로써 자신에게 닥쳤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³¹⁾

즉 「도미설화」에서 도미 부인이 지혜를 통해 위기를 탈출하는 행위는 「성주풀이」의 황우양 부인이 보여준 지혜와 상통하는 것으로, 두 작품

31) 우리가 인저 백년기약 맺일진대 술한잔이 읊일소냐

술상 디려 술 부어라

옥단춘이 술상 디려 단단춘이 술상 붓어

일배 일배 부일배루다가 소지냥이를 매겨 주니

소지냥이 거동 봐라

흥취를 못이기어 부인에 무릎을 비고 이리저리 둥글며

다리두 주물러 달라 허구

팔도 주물러 달라 허니

읊는 정이 있도록 다리도 주물러 주면

팔도 주물너서 잠은 잔뜩 디려 놓고

오오, 대다라기 대자귀 내어 놓아

쇠다라기 쇠자귀 내어 놓아

황에양씨를 붙늘 적에

대감님 대감님 인제 이놈이 잠이 잔뜩 들었으니

어서 웬수 갓구 사읍시다 허니(심복순본, pp. 199-200)

모두 남편보다 부인의 지혜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남편은 자신에게 닥친 위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아둔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비해 부인을 지혜롭고 용기 있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도미설화」와 「성주풀이」에서 보이는 두 여인은 뛰어난 능력과 높은 정절 의식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 모두에서 그들의 이름은 남편의 이름을 빌려 ‘○○부인’으로만 언급된다.³²⁾ 결국 두 여인의 능력과 정절이 자신들의 위치를 높이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이름이 기록되거나 혹은 남편이 신격으로 좌정되는 데 이용된다는 점까지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충남 보령 지역의 「도미설화」와 「성주풀이」의 유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작업을 통해 서로 다른 장르의 두 작품이 매우 많은 상사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문헌전승이나 다른 지역 각편과 이질적인 변이 양상을 보이는 「도미설화」와 「성주풀이」가 매우 흡사한 서사 전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은 무척 흥미로운 부분일 수 있다. 그렇다면 두 작품이 이렇게 유사한 전개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겠다.

4. 충남 지역 「도미설화」의 전승과 변이의 한 단서

앞 장에서는 충남 보령 지역 「도미설화」만의 특이성에 대해 살펴보고,

32) 「성주풀이」의 황우양 부인은 김수희본에서만 ‘계룡산 막막부인’으로 명명될 뿐 다른 각편에서는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부인’이라고 호칭될 뿐 별도의 명칭은 없다(성길제(1996), 「성주무가의 연구」,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28).

이 특이성이 「성주풀이」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고찰하였다. 그렇다면 충남 보령 지역 「도미설화」는 왜 이렇게 「성주풀이」와 유사한 서사로 변이되어 전승된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승과정에서 「성주풀이」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실상 충남 보령 지역 「도미설화」는 다른 「도미설화」 각 편과 분명 다른 전승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남 보령 지역만의 이질적인 전승 환경이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즉 「도미설화」가 전승되며 「성주풀이」의 영향을 받아 부분적인 변개를 이루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지에는 몇 가지 풀어야 할 문제들이 존재한다.

먼저 「도미설화」와 「성주풀이」는 장르적으로 큰 차이점이 있다. 「성주풀이」는 곳거리에서 불리는 무가로 가택신인 성주신의 내력을 푸는 신화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충남 보령 지역 「도미설화」는 ‘도미항’, ‘미인도’, ‘상사봉’, ‘전마들’ 등을 증거물로 하여, 이들의 유래를 설명하는 전설에 가깝다.³³⁾ 이렇게 볼 때, 「성주풀이」와 「도미설화」는 무가와 전설이라는 장르적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미 다양한 연구를 통해

33) 「도미설화」의 장르에 대해서 이성희는 신화, 전설, 민담 중 민담에 가장 가깝다고 보았다. 민담의 주인공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인물인데, 도미가 바로 이러한 인물이라는 점과 권력에 의해 고난을 당하고 지혜로써 그 고난을 극복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민담이 가지고 있는 낙관주의적 세계관을 드러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논자는 「도미설화」가 비극적 결말로 종결되는 것을 들어 민담의 특성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하였다.

물론 「도미설화」의 장르 구분에 어려움이 따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충남 지역 「도미설화」는 다양한 증거물을 통해 그것의 유래를 설명하는 유래담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전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도미설화」의 결말은 비극적인 것이 사실이다. 도미 부부가 위기를 피하기는 하지만, 도미는 두 눈을 잃게 되고, 고향을 떠나 타향에 정착해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오히려 비극적 결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충남 지역 「도미설화」를 전설로 파악하고자 한다(이성희(2000), 「도미설화 연구」, 『고향논집』 26, 경희대학교 대학원 교우회, p. 6 참조).

설화와 서사무가가 활발하게 교섭했음이 밝혀져 있다.³⁴⁾ 이에 두 작품 간의 장르적 차이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전설과 무가 사이에도 교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요한 문제는 충남 보령 지역 「도미설화」와 「성주풀이」가 어떻게 교섭할 수 있었는가이다. 「성주풀이」는 화성, 안성, 수원 등 주로 경기 이남에서 채록되었다. 이에 「성주풀이」의 전승지역은 경기 남부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충남 보령 지역에서 전승되는 「도미설화」와 「성주풀이」는 전승 지역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전승지역이 같다면 해당 지역의 전승맥락에 맞게 서사가 변이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전승 지역을 보이고 있기에 이와 같은 논지는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경기 남부와 충남 보령 지역은 서로 인접한 지역으로 그 거리가 가까운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리의 위치를 통해서 충남 보령 지역 「도미설화」와 「성주풀이」가 일정한 교섭을 이루었을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

「성주풀이」는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 전승되는데, 이 지역은 강신무가 우세한 중부지역이면서도 세습무가 존재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세습무인 ‘화랭이’에 의해 「성주풀이」가 전승되면서, 「성주풀이」는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경기 남부 지역만의 대표적인 서사무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³⁵⁾ 즉 「성주풀이」는 경기 남부에서 주로 활동하던 화랭이들이 전승시킨 대표적인 무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화랭이들이 경기 남부 지역에서만 활동한 것은 아니다. 충청도에서도 화랭이가 활동했음은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

34) 신화와 설화의 교섭에 대해서는 서대석의 연구가 가장 대표적이다. 서대석은 서사무가와 같은 신화의 형성에 있어서 설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살핀 바 있다(서대석(1968), 「서사무가연구-설화·소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5) 홍태한(2002), 「<성주무가> 연구」, 『한국서사무가연구』, 민속원, pp. 77-81.

다.³⁶⁾ 사실 충청도는 법사 무속이 완강하여 화랭이 무속이 남아 있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장주근이 1974년 충청남도 무속을 조사했을 당시 화랭이 집단이 남아 있었음을 밝혀, 충청도에서도 화랭이가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³⁷⁾ 이 조사에서 두 집단의 화랭이 가계가 조사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부여의 이어린 가계이고, 또 하나는 원산도의 김인균 가계이다. 이들 가계가 조사되었을 때는 법사나 강신무들이 밀고 들어오며 충남 지역에서의 화랭이의 영향력이 매우 감소된 시점이었다. 더욱이 이들 지역의 화랭이들은 굿판에서 멀어져 명창 내지 광대로 변혁을 꾀하고 있어 그 영향력이 더욱 기울고 있었다.³⁸⁾ 하지만 분명 이들 가계를 중심으로 충청 지역에서도 화랭이가 활동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충청 지역 화랭이 가계인 이어린 가계와 김인균 가계의 활동 지역이다. 먼저 이어린 가계는 충남 부여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또 김인균 가계는 원산도를 그 활동 지역으로 삼고 있다. 원산도는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를 주소로 하고 있다. 즉 충남 보령 지역 「도미설화」가 전승된 지역과 같은 보령에서 화랭이들이 활동했다는 것이다. 특히 원산도는 충남 보령 지역의 각편인 허준본과 김중찬본에서 도미 부부가 달아난 섬이기도 하다. 또한 앞에서 밝힌 이어린 가계는 충남 부여에서 활동했는데, 충남 부여는 보령과 바로 인접한 지역이다. 지도상으로 볼 때 원산도와 부여 사이에 보령이 있어 이들 지역은 바로 인접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 가능하다. 즉 충남 보령 지역은 충청도 화랭이의 주요 활동 무대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다소 멀게 느껴졌던 「도미설화」와 「성주풀이」의 거리가 아주 가깝게 다가온다. 「성주풀이」는 경기 남부 지역 화랭이들이 전승시

36) 장주근(1975), 「무속」,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충남편』, 문화재관리국.

37) 김현선(1995), 「화랭이 집단의 지역적 분포와 예술사적 의의」, 『문학과 사회집단』, 한국고전문학회, p. 371.

38) 김현선(1995), p. 373.

킨 경기 남부의 대표적 서사무가이다. 이러한 전승 맥락은 충남 보령 지역 화랭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충남 보령 지역의 화랭이들은 시대적 변혁의 흐름 속에서 소멸되어 갔지만, 그들이 주로 활동하던 시기에는 해당 지역의 대표적 세습무로 지역 전승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에 이러한 영향 속에서 충남 보령 지역 「도미설화」가 문헌전승이나 다른 지역의 구비전승의 맥락과는 다른 독자적인 서사를 구축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충남 보령 지역 「도미설화」와 「성주풀이」가 매우 흡사한 서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가능성을 더욱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의 굿의 역할과 달리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굿이 열리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인근 마을에서 도시락을 싸서 올 정도로 굿은 당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의미로 작용했다.³⁹⁾ 단순히 제의로서만이 아니라, 놀이이자 구경거리로도 작용하며 많은 사람들이 굿을 즐겼다. 더욱이 이러한 굿 현장에서 구연되는 서사무가는 주술적 노래이자, 재미있는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무당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서사에 귀를 기울이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사를 체득(體得)하고, 그것이 다시 사람들의 입에서 구연되며 설화로 탈바꿈되기도 하는 것이다. 충남 보령 지역 「도미설화」 역시 해당 지역에서의 굿에서 구연된 「성주풀이」의 영향을 받아 구연자들의 입을 통해 변이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그 지역 사람들이 공통되게 변이된 설화를 구연하는 것을 볼 때, 이는 개인적인 이유보다는 지역적 특성에 의한 변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 지역적 특성을 바로 「성주풀이」와 연관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39) 김인회 외(1985), 『수용포 수망굿: 죽은 혼끼리 결혼식을 올리는 굿』, 열화당, p. 44.

정리하자면, 충남 보령 지역 「도미설화」는 기본적인 「도미설화」의 서사 맥락을 유지하면서도 일정한 변이를 보인다. 그런데 충남 보령의 「도미설화」의 변개 양상이 서사무가 「성주풀이」와 깊은 연관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고려한다면, 충남 보령 지역의 「도미설화」의 변이 과정에서 서사무가 「성주풀이」의 영향을 통해 일정한 변이를 이루었을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삼국사기』를 비롯한 문헌 전승의 맥락과 경남 진해 지역의 구비전승의 맥락과는 매우 다른 서사가 전승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⁴⁰⁾

설화와 서사무가의 교섭 관계는 일찍이 연구대상으로 자리 잡았다.⁴¹⁾ 다양한 설화 작품과 서사무가가 서로의 형성 과정에서 교섭하며 연관 관계를 맺은 것이다. 충남 보령 지역 「도미설화」와 서사무가 「성주풀이」 역시 이러한 교섭의 자장(磁場) 안에서 전승과 변이에 있어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실상 「도미설화」는 분명한 문헌전승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헌전승에 기초하여 구비전승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대체로 동일한 서사를 갖는 문헌전승에 비하여, 구비전승의 영역으로 그 자장을 달리함으로써 주변 서사와의 교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도미설화」와 같이 문헌전승이 분명한 설화 역시 구비전승의 영역에서는 다양한 변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러한 변이가 서사무가와 같이 장르를 달리하는 작품과 교섭하며 이루어진

40) 경남 진해 지역에서 전승되는 「도미설화」 역시 이와 유사한 논지로 파악이 가능하다. 경남 진해 지역의 각편에서 도미를 정승으로 설정하고 있는 각편이 있는데, 이것이 『성주 도씨 족보』에 실린 「도미설화」 같은 설정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남 진해 지역의 각편과 성주 도씨의 집성촌인 성주가 같은 경상도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것 역시 경북과 경남이라는 지역적 거리가 존재한다. 더욱이 경남 진해 지역 「도미설화」와 『성주 도씨 족보』의 연결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는 추론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41) 서대석(1968).

다는 것을 통해 설화 전승 맥락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설화는 유기적으로 주변 것들과 교섭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등 생동하며 전승된다고 볼 수 있다.

5. 나오며

이상으로 「도미설화」의 구비전승과 변이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도미설화」는 『삼국사기』라는 대표적인 텍스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구비전승 영역에 대해서는 그간 연구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한 구비전승 양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특히 그 변이양상이 두드러지는 충남 보령 지역 「도미설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충남 보령 지역 「도미설화」는 여타 각편과 달리 도미의 직업이 목수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갖는다. 또한 권력자가 도미 부인을 겁탈하기 위해 도미에게 건축을 맡겨 부재 상황을 만든다는 점에서 다른 각편들과 차이점이 보인다. 마지막으로 도미 부인이 훼손을 피하기 위해 몸종으로 자신을 대신하는 서사는 등장하지 않고, 자신의 부정을 핑계로 말미를 얻는 방법만을 선택한다는 점 역시 두드러지는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화소들은 특이 지점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 문헌전승과 구비전승에서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는 「도미설화」의 전승양상을 살펴볼 때 충남 보령 지역의 각편은 변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충남 보령 지역 각편의 서사가 서사무가 「성주풀이」와 매우 흡사해 주목된다. 「성주풀이」 역시 목수인 황우양과 미모의 부인인 황우양 부인이 부부로 등장하고, 황우양이 상부의 지시로 인해 건축에 동원되어 부재 상황을 만든다는 점에서 「도미설화」의 설정과 유사하다. 이러한 부재 상황을 틈타 소진랑이 황우양 부인을 겁탈하려 하는 점 역시

시 「도미설화」에서 왕이 도미의 부재를 틈 타 도미 부인을 겁탈하려 하는 것과 유사하다. 또한 황우양 부인이 휘절이라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자신의 몸의 부정을 핑계로 시간을 벌고 있는 점 역시 충남 보령 지역의 「도미설화」와 비슷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때, 충남 보령 지역의 「도미설화」는 「성주풀이」의 영향을 받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성주풀이」는 경기 남부에서 전승되는 서사무가로 두 작품의 전승 영역이 다르다. 이에 두 작품의 교섭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도미설화」가 전승되는 충남 보령 지역은 충청도임에도 「성주풀이」를 전승하는 집단인 화랭이가 활동하던 주요 지역이다. 이에 「성주풀이」를 전승하던 집단이 충남 보령 지역에서도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충남 보령 지역 각편의 이질성은 「성주풀이」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자 료】

『삼국사기』

『성주 도씨 족보』

김태곤(1978), 『한국무가집』 3, 집문당.

정상박(1988), 『도미부인 설화 전승고』, 『국어국문학』 8,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최운식(1996), 『도미설화의 전승 양상』, 『고문화』 49, 한국대학박물관협회.

赤松智城·秋葉隆(1991), 심우성 역, 『조선무속의 연구』 上下, 동문선.

【논 저】

강진옥(1995), 『삼국 열녀전승의 성격과 그 서사문학적 의의』, 『한국 서사문학사의 연구』 2, 중앙문화사.

_____ (1995), 『열녀전승의 역사적 전개를 통해 본 여성적 대응양상과 그 의미』, 『여성학논집』 1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권오성(1981), 『삼국사기 열전의 문학적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나영(2011), 『성주무가 사설의 ‘공간-영역’에 관한 세 층위의 분석』, 『인문과학연구』 29, 성신여대 인문과학연구소.

김낙효(1992), 『도미설화의 소설화 고찰』, 『봉죽헌 박봉배 선생 정년 기념 논문집』, 봉죽헌박봉배선생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김용덕(1987), 『한국전기문학론』, 민족문화사.

김인희·정진홍(1985), 『수용포 수망곳: 죽은 혼끼리 결혼식을 올리는 곳』, 열화당.

김태곤(1974), 『무가의 전승변화체계—성주무가계통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7, 한국민속학회.

김태준(1939), 『조선소설사』, 학예사.

김현선(1995), 『화랭이 집단의 지역적 분포와 예술사적 의의』, 『문학과 사회집단』, 한국고전문학회.

박상관(1994), 『도미설화, 그 전승의 맥락』, 『우리 역사인물 전승』 1, 집문당.

- 박용식(1993), 『삼국시대의 설화 연구와 소설사적 문제』, 『고소설사의 제문제』, 집문당.
- 서대석(1989), 『성주풀이와 춘향가의 비교연구』, 『판소리연구』 1, 판소리학회.
- _____ (1968), 『서사무가연구-설화·소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길제(1996), 『성주무가의 연구』,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소인호(1998), 『한국전기문학연구』, 국학자료원.
- 손정인(2003), 『<도미전>의 인물형상과 서술방법』, 『어문학』 80, 한국어문학회.
- 심정섭(1979), 『삼국사기 열전의 문학적 고찰』, 『문학과 지성』 10-1, 문학과 지성사.
- 윤채근(1999), 『소설적 주제, 그 탄생과 전변』, 월인.
- 이동환(1994),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한국사』 17, 국사편찬위원회.
- 이성희(2000), 『도미설화 연구』, 『고향논집』 26, 경희대학교 대학원 교우회.
- 이준희(2002), 『도미설화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헌홍(1999), 『고전소설강론』, 세종출판사.
- 임형택(1989), 『《삼국사기·열전》의 문학적 고찰』, 『한국한문학연구』 12, 한국한문학연구회.
- 장덕순(1970), 『도미설화와 <아랑의 정조>』,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장주근(1975),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충남편』, 문화재관리국.
- 정상박(1988), 『도미부인 설화 전승고』, 『국어국문학』 8,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조현설(2009), 『성주풀이』,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 1, 국립민속박물관.
- 최래옥(1981), 『관탈민녀형 설화의 연구』, 『한국고전산문연구』, 동화문화사.
- 최운식(1996), 『도미설화의 전승 양상』, 『고문화』 49,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홍태한(2002), 『<성주무가> 연구』, 『한국서사무가연구』, 민속원.

원고 접수일: 2015년 3월 26일

심사 완료일: 2015년 4월 17일

게재 확정일: 2015년 5월 1일

ABSTRACT

A Study on the Oral Transmission of *Domi* in *Samguksaki*
- In Particular on its Variation in the Chungnam Province of Korea

Jeong, Jeho*

This research examines the version of the *Domi* myth which comes from Boryeong, located in the Chungnam region. The Chungnam version of the *Domi* myth features several distinctive elements vis-à-vis other versions. First, *Domi* is a carpenter. Second, the powerful individual entrusts *Domi* with a building job in order to ensure his absence and then tries to rape *Domi*'s wife. Third, *Domi*'s wife avoids rape by asserting her own uncleanness, rather than a maid being a replacement. These elements represent a great difference compared to other versions.

In particular, the Chungnam version of the *Domi* myth is very similar to the shamanic *Seongjufuri* myth. A carpenter also appears as a character in the *Seongjufuri* myth. Hwang-uyang is also absent due to being involved in building construction due under the direction of the upper class. In addition, Hwang-uyang's wife also avoids rape due to her own uncleanness.

The Chungnam version of the *Domi* myth was influenced by the

*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Dankook University

Seongjufuri in transmission. But was *Seongjufuri* passed down in the southern region of Gyeonggi Province. So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myths. But the Haraeng-i of the southern region of Gyeonggi Province also played in the Chungnam region. So it is possible that *Seongjufuri* may have influenced the Chungnam version of the *Domi* myth.

